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이 <말씀의 근본>을 모르면 안 된다.
2. 섭리사는 시대 말씀을 듣고 <근본>을 아니, 새로운 시대에 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왔어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그의 육도 영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다.
3.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리면 안 된다.
4. 만일 수학 문제에서 답을 쓸 때 한 자만 틀려도 그것은 절대 틀린 것이다. 이와 같이 <성서>도 조금만 틀려도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5. 주는 역사를 1초도 틀리지 않게 전부 풀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에 “너희가 호리라도 남기면 결단코 안 된다.” 하였고, 주도 주로서 결단코 안 된다 말씀한다.
6.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하였다. 사람은 머리카락을 하나씩 세지만 하나님은 쳐다보면 동시에 아신다. 주도 이산에 나무가 몇 주 있다는 것을 세어보지 않고도 안다. 입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세는 것이다. 이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인의 능력, 머리의 능력이다.
7. 너희들도 주와 같이 하라. 머리가 하는데 지체가 못하면 그것은 불구자와 같다.
8. 지체라면 머리와 똑같이 알아야 된다. 안 해서 모르는 것이다.

9. 주는 성서를 풀며 행하니 숨길 것이 없고,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하며 따른다.
10. 사람들은 주를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다.” 하니 금방 믿고 바로 따라왔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섭리사를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이 됐어도 부끄럽게 믿으니 살아나지를 못한다. 이는 마치 자기 소유의 땅을 팔려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땅인 것을 믿어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 팔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세상은 믿는 것이 어렵다.
11. 하나님은 사람의 명지털까지도 달아보는 저울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에게만 말씀하셨다. 주가 말하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알 사람이 없다. 오직 주가 전해주는 말씀을 앎으로서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드릴 수 있다. 아는 만큼 알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지혜의 왕>이라는 것이다.
12. 지체들을 전부 놓고 봐도, 지체는 <머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체는 머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할 때 겨우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
13.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를 통해 세밀하게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근본을 말씀해주신다.
14. <성경>도 주만 알기에 주만이 실천한다. 다른 자들은 모르기에 어렵도 없다.
15. 실천할 때 극적인 것은 몸은 필요 없이 <머리>로만 실천한다.

〈생각〉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갈 때, 막 뛰어가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 〈생각〉으로 실천해서 간다. 기도할 때에도, 무언가를 구상할 때에도 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다. 고로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의’가 되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이다.

16. 빛을 발하는 것에는 〈행동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있고, 〈정신계로 빛을 발하는 것〉이 있다. 〈정신계로 빛을 발하는 것〉은 앞서 생각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이 의가 돼서 빛을 발한다.
17. 주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주면 〈심정의 빛〉, 〈영의 빛〉을 발한다.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
18. 선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드렸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근본을 깨닫고서 20일 동안 울며 그 심정을 알아드렸다. 그 후 20년 동안 수도생활을 해왔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지구상에 그렇게 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말씀하셨고, 루터도 말하기를 선생같이 수도 생활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19.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근본을 아는 자가 〈주〉다.
20. 〈마음〉을 알아주고, 〈심정〉을 알아줘야 한다.
21.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항상 주께 물어봐라. 이것이 비밀의 말씀이다. 결혼한 부부도 서로에게 물어보지 않고 살면 싸우게 된다. 자녀에게도 물어보지 않으면 서로 싸운다. 이와 같이

항상 물어보고 해야 빛을 받는다.

22.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드리지 않으면, 그 심정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심정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크게 빛을 받는다.

23. 하나님은 근본 골수를 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 그리스도의 저울이다.

〈하나님 말씀〉

24.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이 말씀을 다시 들어라. 네 빛이 가까이 왔노라. 두려움으로 감격함으로 빛을 발하라.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 각자 빛을 발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인 빛을 발하는 시간은 저마다 때가 각각 다르니라. 각자 할 때는 손만 해도 되고, 발만 해도 되고, 눈만 해도 되느니라. 이는 각자의 축복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니라.

26. 그러나 나 여호와가 빛을 발하는 때, 내가 보낸 몸, 곧 주로 말하는 그 빛을 발하는 때는 다르니라. 그때는 지체들 전체가 해야 되나니, 이는 생명에 관한 문제, 축복에 관한 문제들이니라.

27.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심판을 먼저 하지 않노라. 항상 심판을 받지 않도록 축복을 주고, 미리 말씀을 주고, 붙잡아주기도 하나니, 그것이 끝난 후에는 계절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니라.

28. 심판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나니, 선악을 구별해서 선은 내 우편에, 악은 내 좌편에 버리느니라. 나 여호와 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자는 죄가 없다 아니할 수 없나니, 그

들은 구원에 참여를 하지 못하리라.

29. 여호와와 말씀의 선포하는데도 거스르면, 지금은 내가 괴롭게 해서 너희를 깨우쳐주지만, 이후로는 괴롭게 해서 깨우쳐주지 아니하고 사망과 같이 삼켜버리게 한다.
30. 내 몸이 10년 동안 십자가를 질 때 너희도 같이 지지 않았느냐. 그때는 빛을 받을 수가 없고, 각자의 기도하는 대로 빛을 받았을 때였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온 인류에게 “빛을 받하라.” 말씀했노라. 그때가 바로 부활기니라. 그때부터 너희가 빛을 받았으니,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억을 안 하면 축복을 못 준다. 지난 3년간 내 몸으로 빛을 받으며 해온 것을 보아라.
31. 내 보낸 자는 1999년도에 성지 땅에 옷을 입히다 떠나갔노라. 그러므로 다시 와서 성지 땅에 옷 입히는 것을 나 여호와가 보낸 자를 쓰고, 또 너희를 쓰고 육으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 상상도 못한 일들을 99% 나 여호와가 성령과 같이 했으니, 지난 날 하나하나 행해 온 것들을 모두 보아라.
32. 내 보낸 자가 시대의 십자가를 다 지고 나와서 보니, 모두 휴거는 이루었지만 육신이 늙어있고 죽은 상태였기에, 내 육이 이를 쳐다보고 인생의 허무를 느끼며 한숨을 쉬고 또 한숨을 쉬었노라. 그러므로 보낸 자를 통해 빛을 발하는 말씀을 주어서 다시 영도 육도 부활을 이루게 하였다.
33. 내 말을 정녕코 깨닫고 두려움으로 들어라. 내 육은 산에 있을 때 매일 영하 14도 되는 곳에서 찬물로 목욕하며, 밥도 안 먹

고, 줄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다. 독수리 봉에서 20년 동안 줄지 않고 행했기에 이 말씀을 줬노라. 너희는 나의 육처럼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능력을 주지도 않는다.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를 깨닫고 알기에 아직도 멀었고, 나 여호와도 그만큼 모르노라.

34. 지난 3년 동안에 내 육이 빛을 발한 것을 너희들이 먼저 깨달아 알지니라.

35. 병들어 아파하고, 육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약수물을 줘서 수만 명을 고쳐줬다. 나 여호와의 육신도 극한 병에 빠져있을 때 약수물을 마시고 20일 만에 고침을 받았기에 그 힘으로 “약수물 먹으면 다 낫는다!” 하며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 중에 지금 병에 있어도 모르는 자가 있나니, 더 깊이 깨닫고 모두 육신의 병, 영혼의 병들을 고쳐라.

36. 내 보낸 자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부활시킴으로 나 여호와가 섭리에 선포한 것을 시행하였다. 또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섭리의 축복, 교회의 축복,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지 땅의 축복, 행사의 축복, 모임의 축복 등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며 빛을 발하는 역사를 했노라.

37. 이렇게 짝막한 기간에 엄청난 축복을 누가 이렇게 받았단 말이냐. 너희는 할 수가 없느니라. 이는 내 육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로 인해서 받은 것이니 이를 정녕코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 ‘빛을 발하라’ 말씀한 때에도 너희가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지난 3년을 생각하여라.

38. 이같이 너희는 축복을 받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줬나 보아라. 나 여호와와는 지금 심판을 하고 있노라. 내 육으로 심판이라 계속 강

조하지 않았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신의 심판이라고 다 하노라.

너희는 분명코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라! 그 말이 나 여호와에게 닿을 때까지 더 깨달아라. 그래야 깨닫는 자로 인정한다.

39. 너희는 나 여호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를 모르느냐. 나의 심정을 깨달아라.

40. 너희도 시대를 따라 심판 가운데 같이 고통을 받고 있노라. 이를 통해 내 육이 10년 동안 갇혔을 때의 고통을 지금 비슷한 고통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는 나가면 걸리고, 모이면 걸리니, 다들 우울증과 답답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마치 옥에서 가만히 있기에 답답한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41. 그러므로 섭리사 전체가 이때를 통해 내 보낸 자가 받은 고통과 답답함의 100분의 1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온 세상은 이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깨달아야 내 심정을 아니 확실히 깨달아라.

42. 나의 전, 월명동도 처음에는 삭막했으나 어마어마한 나무를 가져다가 옷을 입혔듯이, 너희에게도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 이 비유를 실제로 알아들어야 한다. 성지 땅을 보고 “야~ 멋있게 만들었다. 좋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표현이다. “나의 영을 이렇게 성지 땅과 같이 입히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심정과 닿고, 감격한 마음이 들어오느니라.

43. 나 여호와와 너희들이 말하는 소리와 다르니 이를 깨달아라.

44. 진실로, 정말로 행해야 한다. 일어나 빛을 받을 때 자신이 얼마

나 빛을 받았는지 자신의 영과 혼을 보고 알아라.

45. 나 여호와와 너희의 사역자인 천사들을 통해 너희를 돕느니라.

46. 천사들이 너희가 노래할 때 돕느니라. 노래할 때 은혜롭게 천사와 같이 화답하여라. 그러나 나 여호와와 원본 음성은 내 육을 통해서만 나간다. 그것이 내 육을 통해 노래로 나가고, 지휘할 때 나 여호와가 그를 쓰고 행한다.

47.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니 나 여호와가 직접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와 소리를 들으려면 보낸 자 그를 통해서 들어라. 그의 입으로만 나 여호와와 소리가 나오느니라. 하늘의 음성, 나 여호와와 음성이니라.

48. 이따로 이것을 깨닫고 알지니 내 육이 나왔을 때 1000곡 이상의 노래를 내가 불러줬노라. 그 가냘픈 소리, 소쩍새 밤을 새우는 슬픔의 소리, 슬픈 소리, 기쁜 소리, 아픈 소리, 심정을 알아달라는 소리! 나 여호와와 소리다.

49. 나의 음성을 나의 보낸 자만 해야 되느냐,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하는 자는 나 여호와와 음성, 보낸 자의 소리를 같이 낸다.

50. 나의 소리, 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육신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시대의 책만 쓰게 하며 ‘너희들이 외쳐라.’ 할 것이니라. 내가 그로 말하기를 10년 동안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장난이 아닌 얘기니라. 나 여호와와는 한 번 한다면 하느니라. 내 육신도 그러하지 않느냐. 그는 한다면 하느니라.

51. 나 여호와와 내 보낸 자와 함께 하리니,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요, 두 번째는 그에게 붙는 자들의 부활이니라.

52. 오늘은 너희에게 말씀의 빛을 발하는 것을 하지 않느니라. 지난 날을 깨달아 알지니라. 그래야 내 심정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느니라.
53. 자기의 생각으로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니라. 나 여호와와 마음에 들려면 목숨을 걸어놓고 전심을 다해서 하루 종일 땀생각 하지 말고 나 여호와에게 300번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느니라.
54. 나 여호와와 너희들이 발판만 되어있으면 무한대로 행하고 싶노라.
55.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너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와서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때가 되어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되어서 선포한 것이니 1월 1일부터 순서 있게 하나하나 말씀을 선포하였다.
56. 때가 됐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자. 나 여호와와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내 보낸 자, 주로 깨달아라.
57. 나 여호와와 내 보낸 자로 신같이 행하리라. 그 대신 너희가 그만큼 뛰어야 되느니라. 지금도 보낸 자는 무한대로 초인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다. 재미로, 하나의 분위기로 볼 수 없느니라.
58. 나 여호와와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 육신을 쓰고 시작했노라. 이를 분명히 알아라.

59. 1999년도에 주가 온다 했지만 이미 20년 전에 역사를 시작했노라.
60. 전기를 사용해 빛을 내려면, 미리 내선공사를 하며 전기선을 연결해야 나중에 불을 켜올 때 불이 탁 켜진다. 그와 같이 “빛을 발하라.” 말씀하며 지금의 빛을 발하는 때는 이미 이전에 해온 것이니라. 1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3년 동안 빛을 발하고,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한 것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이니라.
61. 무한대로 배워야 된다. “내 육을 통해서 배워라. 공부하라.” 해도 깨닫지 못하니 섭리 모두가 ‘왜 나는 안됐을까.’ 하며 생각한다. 나 여호와와는 행한 대로 갚아주었고, 또 앞으로도 갚아줄 것이니라.
62. 항상 다른 자의 머리에 맞추지 말고 <나 여호와와의 머리>에 맞추고, <내 보낸 자의 몸>에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마지막 천국 문을 열지 못한다.
63. 내 육신의 몸에 맞춰야 내 마음에 맞게 하니라.
64. 너희가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한 지난 3년을 깨달아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씀’을 더 주리라.
65.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일부는 잘하고 일부는 못 한다. 같이 빛을 발해야 되나니, 내 육신 따라 너희도 같이 행하여라.
66. 내가 너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니, 빛을 발할 때는 불가능한 것도 다 할 수 있느니라.

67. 나 여호와와의 성전을 알아야, 나의 성전 같이 너희의 신앙이 반석 같고 근본에 흔들리지 않으며, 성전에 있는 천년 소나무같이 너희들을 상징할 수 있다. 너희 선생을 보라. 너희 선생도 했기에 상징 소나무와 상징 돌들을 준 것이다. 이는 성자 바위와 자화상 바위가 아니냐.
68. 섭리를 의심하며 배우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깨달은 자는 깨닫고 행해야 할지니, 이제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리라.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나 여호와는 설교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리라.
69. 모두 지난날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깨달아 빛을 받하기 전에는, 일어나 빛을 받을 수 없다.
70.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엄청나게 해주셨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를 세워서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수고한 것은 별 것이 아니다. 모두 주의 덕으로 엄청나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3년 동안 퍼부어서 해줬는데 모르느냐.” 하고 양심을 깨우쳐 주고 계신다.
71. 주는 심정을 알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과 주의 심정을 알아라.
72. 주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주었다. 주도 시대 십자가를 질 때 서 있다가 쓰러져서 유리창이 깨져 죽을 뻔한 일들, 많이 아픈 일들이 있었다. 그래도 악착같이 기도하고 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73. 설교시간에만 “주여!” 하며 가식적으로 행하지 말아라. 늘 생

활 가운데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악착같이 행해라.

74. <머리>가 성해야 <육신>도 성하게 돌아가니 늘 <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75. 항상 <주의 이름>으로 행해라. 축도도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 하며 마무리한다. 주의 이름을 안대면 안 된다. 이것이 짝혀야 한다. 약수를 마실 때도 주의 이름을 대고 기도하며 마셔보고, 안 대고 기도하며 마셔봐라. 하나님께서는 명지털 하나까지 세심히 보시니 할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기도>

76. 사람들이 주의 심정을 모르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주셨다.

77.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없다. 고로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고하라. 성령께 고하라. 성령이 그렇게 옆에 따라다니시고 함께 한다고 해도 성령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말들 하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하셨다.

78. 주의 심정을 알아야 그 심정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79.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깨닫고 주는 신랑이라고 하면서 늘 웃으면서 하지만, <근본>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모르면 안 된다. 얕힌 것이 안 내려간다.

80. 주는 목숨을 걸고 어제도 돌아다니다 오고, 늘 아픈 자들을 위해 밤이 깊도록 밤중이 넘도록 간구하며 기도한다. 새벽에 일어나려

면 어렵지만 성령께 맡기고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행한다. 그런데 기도 안 해준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자들, 아픈 자들은 본인들이 더 기도를 해야 한다.

81.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긴 기도가 필요 없다. “하나님 이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면 끝난다. 선생처럼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알아줘야 <건강의 빛>을 발한다.
82. 아픈 자들이 <병 낫는 비법>이 있다. 하나님, 성령님, 주의 심정을 알아주고, 자기를 관리하는 자의 심정을 알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 알아주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83. <약수물에 대한 근본>을 알아야 된다. 똑같은 물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을까. 약수에 대한 권세를 알고,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84. 약수물은 아픈 사람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 먹어야 된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지만, 건강한 사람도 먹어야 병에 안 걸린다. 아무리 하나님의 육신이라도 공의롭게 못 하면 걸리니 주가 모두 공의롭게 행할 것이다.
85. 선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서, 오늘 아침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인데 저부터도 충격적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내가 말하마.” 말씀하셨다.
86. (하나님) 빛을 발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되게 한다. 어떻게 이것이 됐을까 할 정도로 이뤄진다. 빛을 발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뤄진다. 빛이 뭐냐. 나 여호와와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라. 그러면 육신의 치료도 되고, 영적 치료, 모든 습관도 치료되며, 잘못된 자도 다 일어나지 않느냐.

87.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선생이 많은 서류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주셨다. 생명들을 애타게 하나하나 챙기는 가운데, 상대가 나에게 막 불만을 보여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열심히 해줄게. 도와줄게.” 하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됐다.

88.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말씀,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는 말씀이다. 또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89. “너희들 이것을 행하라. 축복을 주겠다.” 말씀을 백 번, 천 번 들어도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아멘.” 함으로 너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권세를 또 주리라. 또한 내 말을 듣고 “아멘.” 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내가 심령으로 꿰뚫어 보노라. 아멘 안한 자는 “여호와와 말씀이 마땅치 않나이다.” 하며 불만을 하는 자다.

90. 말과 행실이 일체 된 자를 온전한 자라 하느니라.

91. 지체대로 증거 하라. 하나만 증거 해선 안 된다. 성전을 꾸미고 건축하는 자는 그걸로 빛을 발하고 증거 하고, 또 전도하는 자는 말씀으로 증거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빛을 발하며 증거 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대언함으로 빛을 발하고 증거 하고, 너희들이 각자 받은 대로 주를 증거 하라.

92. 하나님 증거는 너희가 하기 어렵다. 하나님 증거는 주로 받고, 너희는 주를 증거 하라. 그래야 그로 인해서 나 여호와를 증거 한다.
93. 모두 하나님의 노래, 성령의 노래를 하라. 신령한 노래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노래, 성령의 노래가 신령한 노래다.
94. <신령한 말씀>을 하라. 하나님이 그 육신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너희는 주와 같이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